

2022 ‘송년의 밤’ 개최

총 동 창 회 : 12월 15일(목) 오후 6시 유성호텔 8층 스타볼룸

재경동창회 : 12월 15일(목) 프라자호텔 지하1층 그랜드볼룸



▲ 2019 총동창회 송년의 밤 사진

2022년 대전고총동창회 ‘송년의 밤’ 행사가 12월 15일(목) 오후 6시 유성호텔 스타볼룸에서, 재경동창회 ‘정기총회 및 대능인의 밤’ 행사가 프라자호텔 지하1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시행으로 2019년 행사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행사이다. 그동안 총동창회 모임이 활발하게

열리지 못했으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동문 간 반가운 얼굴을 마주하면서 화합을 다질 수 있게 됐다.

이날 행사는 특히 대전고 야구부의 대통령배야구대회 우승 이후, 동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친목의 장이어서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 만찬 등 1·2부로 나뉘어

행되며 ‘올해의 대능인상’ 시상과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동문에게 공로패가 증정된다. 회비는 5만 원이다.

총동창회 송년의 밤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어 총동창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전 동문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야구부 28년 만의 전국대회 정상 ‘쾌거’

제56회 대통령배 야구대회 전주고 격파하고 우승,곽성준 MVP 등 3관왕 ... 대전고 9개 부문 수상



야구 명문 대전고가 ‘남पाल아 남아’의 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했다. 제56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28년 만에 전국대회 정상에 올랐다.

모교 야구부는 2022년 8월 17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이 대회 준결승전에서 안산공고를 18-4로 완파한 뒤, 결승전에서도 전주고를 7-4로 꺾고 감격의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대전고는 결승전에서 출발이 좋았다. 1회 초 1사 1·3루에서 4번 타자 김해

찬이 선제 좌전 적시타를 날렸고, 곽성준의 몸에 맞는 공으로 계속된 만루 찬스에서 밀어내기 볼넷으로 2점을 더 내며 3-0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2회 초에는 1사 2루에서 박성빈의 적시 2루타와 김해찬의 희생플라이로 2점을 추가해 5-0으로 승기를 잡았다.

전주고가 3회 말 2점을 뽑아 추격을 당한 6회 초엔 무사 1·3루에서 박성빈의 유격수 땅볼로 3루 주자를 불러들인 뒤 2사 후 곽성준의 우중간 적시 2루타가 터져 7-2로 우승의 고지에 바짝 다가섰다. 전주고는 8회 말 2점을 추가했지만, 대전고 수비에 막혀 추가 득점을 올리지 못했고 마침내 대전고는 영광의 우승컵을 차지했다.

3회 구원 등판한 대전고 에이스 송영진은 6.2이닝 동안 삼진 8개를 뽑아내며 2실점으로 호투했다. 3루수 곽성준은 16타수 11안타(타율 0.688)의 맹타를 휘두르며 대회 최우수선수(MVP)에 타격상, 최다안타상을 휩쓸며 3관왕에 올랐고 우수투수상(송성훈) 등 9개 분야에서 대전고 선수가 입상했다. 김의수 감독은 대전고의 전국대회 첫 우승(1987년 청룡기) 당시 선수였고, 35년 만에 감독으로 우승해 헝가리의 주인공이 됐다.

1962년 창단한 모교 야구부는 1987년 청룡기, 1990년 봉황대기, 1994년 대통령배에 이어 통산 네 번째로 전국 무대를 평정하는 위업을 달성했다.

‘4만여 동문의 화합 한마당’

2022 정기총회 및 모교 방문의 날 행사 개최
자랑스러운 대능인상에 김인중·강창희 동문

대전고총동창회 ‘2022 정기총회 및 모교 방문의 날’ 행사가 2022년 5월 21일(토) 오후 3시 30분 모교 강당에서 동문과 동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3시 30분부터 접수 및 환담,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정기총회, 5시 30분부터 만찬, 행운권 추첨 순으로 진행됐다.

자랑스러운 대능인상에는 김인중(38회) 화백과 강창희(44회) 총동창회 고문이 수상했으며 임갑환(36회), 김석영(50회), 장윤선(50회), 양필환(61회), 오제환(63회), 이도훈(69회), 김병각(69회), 민승기(78회) 동문이 기동창회와 총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수상했다.

정기총회 안전심의에서는 2021회계연도 사업 및 결산 보고에 이어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됐다.



지방선거 대거 당선 ‘대능인 명예 빛냈다’

천안시장 박상돈(47회) 대전서구청장 서철모(62회)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63회)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고 동문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에서 대거 당선됐다. 천안시장에 박상돈 동문(47회)이, 대전시장에 이장우 동문(63회)이, 대전서구청장에 서철모 동문(62회)이 각각 당선됨으로써 대전고의 명예를 드높였다. 이들 동문은 대전고 동문들의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당선의 영예를 안게 됐다고 동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대능인의 전통과 명예를 더욱 빛낼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철모 대전서구청장(62회) “가르침과 용기 주신 동문 여러분에게 감사”

민선 8기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 취임한 후 반가운 소식이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모교인 대전고등학교의 제56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 소식이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통령배는 물론 28년 만에 메이저 전국대회를 제패한 쾌거였습니다.

때마침 고등학교 시절 은사님을 찾아보였습니다. 4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저를 비롯한 제자들의 미래를 위해 때로는 혼내고 때로는 따뜻하게 격려해주시던 은사님의 모습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 은사님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늘 응원해준 동문 선배님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청장으로 취임하며 기쁨보다 제 어깨에 놓인 책임감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진 게 사실입니다. 활력을 잃어갈 것인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대전의 중심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것인가, 그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막중한 책임감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한 힘찬 서구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자 합니다. 투아웃 만루 위기에서 마운드에 오른 투수의 심정으로, 투아웃 만루 찬스에서 타석에 들어선 타자의 자세로, 저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도전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교훈을 모교에서 배웠고, 대통령배 우승컵을 안은 후배들의 모습에서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르침과 함께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모교와 동문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장우 대전광역시시장(63회) “일 잘하는 시장으로 동문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

자랑스러운 대전고등학교 선배님들, 동기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제63회 졸업생 이장우입니다.

동문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6.1 지방선거에서 대전광역시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지면을 빌어 동문 선배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전시장 당선은 이장우 개인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100여 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대전고의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끼고 빛낼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문 여러분들은 그동안 제가 정치에 입문해 지금까지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제가 대전시장 직을 맡아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에 대해 앞으로도 변함없이 기대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지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실현을 통해 대전 시민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대능인이 자랑스러워 하는 대전시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대전고등학교가 누구나 인정하는 명문으로 인정받기까지는 대능인 한분 한분 모두의 치열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저도 145만 대전 시민의 삶을 책임진 시장으로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하겠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일 잘하는 시장, 대전을 정말로 생각한 시장으로 기억되어, 모교로부터 받은 큰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여전히 학창 시절이 엇그제처럼 생생합니다. 같은 교정과 추억을 공유한 우리 동문들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든든하고 또 뜨거워집니다. 이 마음으로 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서 건승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올해의 대능인상 수상자 선정

남성현(56회) 산림청장 이정식(59회) 고용노동부 장관 이장우(63회) 대전광역시장

2022년 ‘올해의 대능인’을 선정하기 위한 대능인상심사위원회(위원장 58회 김인 총동창회장)가 2022년 11월 23일(수) 오후 6시 30분에 동창회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2022년 대전고등학교의 명예를 드높여 올해의 대능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동문은 남성현(56회) 산림청장, 이정식(59회) 고용노동부 장관, 이장우(63회) 대전광역시장이다.

이들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12월 15일(목) ‘총동

창회 송년의 밤’ 행사와 ‘재경동창회 정기총회 및 대능인의 밤’ 행사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사위원들은 “각계각층에 자랑스러운 대능인들이 많이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아서 대능인상을 많이 시상하고 알려져야 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올해의 대능인상 후보자를 연중 계속 추천을 받아 11월에 심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 대능인상심사위원회

▶ 남성현 산림청장(56회)

40여 년 산림전문인으로서 대한민국 산림정책 총괄



남성현 산림청장은 건국대학교 행정학과와 충남대학교 대학원(농학박사)을 나와 산림청에서 약 40년간 근무하면서 기획조정관, 산림이용국장,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항공

본부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등 주요보직을 거치고, 국민대와 경상국립대에서 교수를 역임한 후 산림청장으로 취임(2022년 5월 13일)하여 대한민국의 산림정책을 총괄하는 중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주요 산림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특히 산림청장으로 취임하여 산림청의 수장이자 차관급 공무원이면서 또한 대전고등학교 동문으로서 학교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 주요 프로필

- 1977.2. 대전고등학교 졸업
- 1982.2.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2008.8. 충남대학교 대학원 졸업(농학박사)
- 2015.1.~2017.1. 국립산림과학원장
- 2017.3.~2019.2. 국민대 특임교수
- 2019.3.~2022.5. 경상국립대 초빙교수
- 2022.5.~ 현재 산림청장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59회)

노동계의 산증인으로 고용노동문화 발전에 기여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1986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연구위원으로 노동계에 몸담아 기획조정국장, 대외협력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한국노총 사무처장 겸 정책본부장, 중앙연

구원장, 사무처장을 역임하는 등 약 24년간 한국노총에서 노동전문가로 활동하였으며, 노동계 출신으로는 최초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으로 근무했다. 2022년 5월부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재직하며 일자리 기회 확대와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및 안전한 일터 조성 등 주요 노동현안 해결에 매진하면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적 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 주요 프로필

- 1980.2. 대전고등학교 졸업
- 1985.2.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2012.2. 숭실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 2007.1.~201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 2014.3.~2017.1.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 2017.4.~2020.4.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 2022.5.10.~ 현재 고용노동부장관

▶ 이장우 대전광역시장(63회)

2선 국회의원이자 대전시장으로 대전 발전 견인



이장우(41회, 제15대, 16대 국회의원) 前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하여 2006년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선거에 당선 후 19대,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2선 의원을 지내

다 지역구 활동에만 전념, 2022년 6월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대전광역시장에 당선됐다. 그동안 용전동 복합터미널 건립, 대전 역사 증축, 흥도육교 지하화, 소제중앙공원 조성 등 대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총동창회 자문위원으로 2021년 7월에는 노후화된 총동창회관 방수 및 사무국 내부 리모델링 공사 지원 등 모교와 동 기회 발전을 위해서도 항상 앞장서왔다.

□ 주요 프로필

- 1984.2. 대전고등학교 졸업
- 1992.2.~2004.2.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및 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 2006.7.~2010.6.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 2012.5.~2016.5. 제19대 국회의원(대전 동구)
- 2015.7. 새누리당 대변인
- 2016.8. 새누리당 최고위원
- 2016.5.~2020.5. 제20대 국회의원(대전 동구)
- 2019.9. 자유한국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 2022.7.1.~ 제13대 대전광역시장

박성호(52회) 동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임 이사장에 박성호 전 대전광역시장(52회)이 취임했다. 박 이사장은 2022년 8월 15일부로 공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박 신임 이사장은 1955년생으로 대전고등학교와 성균관대 행정학과, 대전대 공공행정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9년 행정고시(제23회)에 합격해 충청남도 사무관을 시작으로 제7대 대전광역시 서구 구청장, 대전광역시청 경제국장과 기획관리실장, 정무부시장을 역임했다. 이후 제9대 대전광역시장, 제19대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을 지냈다.

이현(55회) 변호사, 제9대 대전사랑시민협의회 회장 취임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제9대 회장으로 이현(55회) 변호사가 2022년 10월 7일 취임했다.

신임 이 회장은 법무법인 세계로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대전지방변호사회 인권·총무이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총회회장, 대전언론문화연구원(인터넷신문 디트뉴스24) 이사장, 민선 8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연규양(57회) 동문, 대전교통공사 사장 취임



연규양(57회, 전 TJB 보도국장) 동문이 대전교통공사 신임 사장에 취임했다.

연규양 사장은 대전고등학교, 한남대학교를 졸업했고 MBC 충북, TJB 대전방송 보도국장 등을 역임했다. 향후 3년간 대전교통공사를 이끌게 된다.



“새로운 100년의 출발, 꿈은 다시 시작된다”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 _ 김인(58회) 대전고총동창회장 축사

“우승 신화 계속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



8월 18일은 가슴 벅찬 감격의 날이었습니다. 28년 만의 전국대회 우승! 이보다 짜릿한 쾌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4만여 동문에게 감동을 안겨준 후배들이 참 대견합니다. 멋지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동안 야구부 우승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모교 윤장순 교장 선생님과 김의수 감독님, 밤낮을 가리지 않고 훈련에 매진해온 후배 선수들에게 4만여 동문과 함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이번 대통령배 우승은 1987년 청룡기, 1990년 봉황대기, 1994년 대통령배에 이어 4번째로 메이저 전국대회 우승의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모교 야구부가 야구 역사를 새롭게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승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남팔아 남아의 심장, 야구부의 신화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모교 야구부가 앞으로도 새로운 우승의 신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대전고의 전통인 후배들에 대한 선배들의 뜨거운 사랑이 커질수록 후배 선수들의 불굴의 용기도 커집니다. 총동창회도 모교 야구부가 전국대회 제패의 짜릿한 감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혼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 _ 윤장순(63회) 대전고 교장 소감

“총동창회와 4만여 동문 여러분에게 감사”



노력과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진리와 같이 대전고 야구부가 뜨거운 열정으로 전국대회 우승의 감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선수 개개인의 역량, 학부형, 코치, 4만여 동문의 응원 속에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고 선수들이 최선의 기량을 펼쳐 고마울 뿐입니다.

이번 대회는 날씨로 인해 경기가 연장되거나 연기되는 등 선수들이 서울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선수들의 컨디션에도 영향을 미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감독과 선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불굴의 정신력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1~2학년 재학생들이 현장응원을 하면서 학교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만들어 주고 싶었는데 우승의 현장에서 학생과 동문 등 1,000여 명이 한마음으로 대능인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야구부 우승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김인 총동창회 회장님과 4만여 동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높은 경기력과 불굴의 투지로 야구부가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 _ 김의수(67회) 감독 소감

“우승 신화 이어가도록 더욱 최선”



대통령배 야구대회의 우승을 이끈 김의수 감독은 “그동안 4강 이상의 성적이 없어 마음이 무거웠고, 모교 출신 감독으로서 한 번만이라도 우승을 이뤄내야 한다는 부담이 컸는데 이번 우승으로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우승의 비결로 ‘서로 간의 믿음’을 꼽았다. “선수들은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감독은 선수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강조하며 지도해 왔다”며 “좋은 결과는 감독이 아닌, 지금껏 잘 따라와 준 선수 개개인이 만든 것”이라며 선수들에게 공을 돌렸다.

김 감독은 “이번 우승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윤장순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님, 총동창회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의수 감독은 대전고의 전국대회 첫 우승(1987년 청룡기) 당시 선수였고, 35년만에 감독으로 우승 행가래의 주인공이 됐다. 김 감독의 부친은 공주고 야구부 초대 사령탑이었던 고(故) 김영빈 감독으로 1977년 대통령배에서 공주고의 우승을 일궈낸 지도자다. 아들 김 감독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45년 만에 대통령배 우승 감독이 되는 진기록도 세웠다.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 _ 송영진(102회) 투수 소감

“대전고 명예 빛내는 멋진 선수 되겠다”



대통령배 야구대회 우승의 수훈 선수인 송영진 선수는 “찬스 뒤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신을 힘을 다해 던졌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듯하다. 김의수 감독님이 믿어주셨고, 보답할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 선수는 이어 “항상 다른 팀 결승전을 중계로만 봤는데, 내가 실제로 하니 정말 기분이 좋다. 목표를 이뤄 정말 하늘을 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송 선수의 포수의 미트를 파고드는 151km/h의 강속구는 성인 국가대표급 투수들에게도 좀처럼 보기 힘든 구속으로 2023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상위 라운드에 지명받을 유망주로 꼽힌다.

송 선수는 “야구 선수는 스스로 훈련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주변의 성원과 지원도 사기에 영향을 미친다”며 “교장 선생님과 감독님, 그리고 총동창회 선배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대전고 야구부로서의 자부심과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멋진 선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모교 야구부 우승 축하 행사

TJB대전방송 '당신의 한 끼' 촬영도 진행



모교 야구부의 대통령배 야구대회 우승 축하 행사가 2022년 9월 28일(수) 오후 5시 30분에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황금축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우승 축하 겸 TJB 대전방송에서 10월 23일(일) 오전 8시에 방송 예정인 '당신의 한 끼'라는 프로그램도 촬영도 진행됐다. 행사에는 김인(58회) 총동창회장, 이왕구(58회) 사무총장, 윤장순(63회) 교장 외 총동창회 부회장, 야구부 학부형, 야구부 등 총 70여 명이 참석했다.



63회 개별모임 후원금 전달_8.26.



총동창회 우승 축하금 전달_8.26.



한상주(61회), 이상민(70회)_8.26.



대전경제인회 후원금 전달_8.31.



61회 골프회(대전) 후원금 전달_9.15.



61회 개별모임(공과 사냥꾼)_9.22.



대능골프회 후원금 전달



대사모 후원금 전달



오형근(44회, 운하리조트(주) 회장) 1천만원 후원

모교운동부 후원금 내역

2022년 11월 30일 기준 (단위: 원)

◇ 개인 ◇				연번				연번				연번				연번			
연번	기수	이름	금액	연번	기수	이름	금액	연번	기수	이름	금액	연번	기수	이름	금액	연번	기수	이름	금액
1	32	송화섭	100,000	59	50	유영길	100,000	118	57	이익재	100,000	177	64	이시행	50,000	236	78	서동호	50,000
2	32	강희륜	100,000	60	50	장윤선	100,000	119	57	박노현	100,000	178	64	장래사	50,000	237	81	정현성	50,000
3	33	박종운	500,000	61	50	박용섭	200,000	120	57	김지호	50,000	179	64	박병천	50,000	238	81	한승희	100,000
4	33	김선구	100,000	62	51	정경연	20,000	121	57	박상규	100,000	180	64	안의주	100,000	239	82	전은석	20,000
5	34	이두석	500,000	63	51	정재건	50,000	122	57	박찬국	50,000	181	64	안덕재	200,000	240	86	주동현	50,000
6	34	이내흔	500,000	64	51	김순식	200,000	123	57	류준호	100,000	182	65	정낙선	100,000	241	86	이경도	100,000
7	35	김영중	100,000	65	51	권용현	300,000	124	57	오세현	300,000	183	65	구본홍	100,000	242	92	강형규	100
8	36	이현우	1,000,000	66	52	유하용	50,000	125	57	김시온	100,000	184	65	구병완	100,000	243	93	도세원	100,000
9	36	송진표	100,000	67	52	홍종우	300,000	126	57	이영민	50,000	185	65	이정섭	50,000	244	93	박진우	50,000
10	36	황상준	100,000	68	52	김재석	50,000	127	58	변재훈	100,000	186	66	이종민	50,000	245	94	고동석	30,000
11	37	전양재	100,000	69	52	김창현	50,000	128	58	곽상규	100,000	187	66	이종한	50,000	246	96	오윤성	10,000
12	37	이달신	100,000	70	52	박종은	1,000,000	129	58	이왕구 사무총장	10,000,000	188	66	강세봉	10,000	247	98	박종수	10,000
13	38	박재우	300,000	71	52	송경현	20,000	130	58	임근철	100,000	189	66	허형범	30,000	248	기수불분명	김진석	10,000
14	38	노병우	100,000	72	52	전종구	100,000	131	58	금기형	200,000	190	67	김익수	100,000	249	기수불분명	박병천	1,000
15	38	김정배	100,000	73	52	김종건	100,000	132	58	김인 총동창회장	5,000,000	191	67	임영수	100,000	250	기수불분명	이재일	10,000
16	39	정성창	100,000	74	53	이영직	100,000	133	58	구양현	100,000	192	67	신용	50,000	251	기수불분명	김진석	100
17	39	김세중	100,000	75	53	최경호	200,000	134	58	유병선	30,000	193	67	이영호	50,000	252	기수불분명	이름불분명	1,818
18	39	윤영중	100,000	76	53	이왕구	30,000	135	58	여성우	100,000	194	67	신동준	100,000	253	비동문	심재원	50,000
19	39	이정배	200,000	77	53	김윤동	50,000	136	58	박용진	100,000	195	67	고영호	100,000	254	비동문	이재수	100,000
20	40	강정석	100,000	78	53	나병정	200,000	137	58	이동혁	100,000	196	67	이기호	100,000	255	비동문	쉬다윗	100,000
21	40	김홍수	20,000	79	53	박관우	100,000	138	58	한택수	100,000	197	67	이현석	30,000	256	비동문	내집식당	100,000
22	40	박제구	300,000	80	53	이은호	100,000	139	58	이진덕	100,000	198	67	박정식	300,000	257	비동문	김현화	10,000
23	40	홍석근	50,000	81	53	노종진	100,000	140	58	백현수(이왕구)	1,000,000	199	67	송지영	100,000	258	비동문	김은화	10,000
24	41	김성평	10,000	82	53	조성준	200,000	141	58	이권희	100,000	200	67	이익선	50,000	259	비동문	김점숙	10,000
25	42	임무길	100,000	83	54	정영재	100,000	142	58	정일세	100,000	201	68	이선현	50,000	260	비동문	조이남	50,000
26	42	장풍기	100,000	84	54	장인상	100,000	143	59	박영우	100,000	202	68	박병일	50,000	261	비동문	김해정	100,000
27	42	임윤봉	200,000	85	54	강대규	50,000	144	59	나경수	100,000	203	68	권태수	50,000	262	비동문	최숙자	100,000
28	42	우종일	100,000	86	54	최병숙	100,000	145	60	박현주	100,000	204	68	이종만	50,000	263	비동문	심재원	10,000
29	43	강희성	50,000	87	54	강길모	10,000	146	60	한희동	50,000	205	68	박철순	100,000	264	비동문	송효숙	10,000
30	43	박운서	100,000	88	54	육근열	100,000	147	60	김선도	50,000	206	68	김준재	50,000	265	비동문	김태근	10,000
31	43	조성근	100,000	89	54	김선주	100,000	148	60	조강희	200,000	207	68	안경환	100,000	266	비동문	주성학	50,000
32	43	박원서	50,000	90	54	조청일	200,000	149	60	김유철	100,000	208	68	이완기	50,000	267	비동문	백현수	10,000
33	44	김병기	100,000	91	54	서익식	100,000	150	60	류재철	100,000	209	68	황인규	100,000	268	비동문	안승자	20,000
34	44	홍오장	100,000	92	54	이희경	50,000	151	60	김종철	200,000	210	68	윤여권	50,000				
35	44	오형근	10,000,000	93	54	강인빈	300,000	152	60	오종현	100,000	211	68	박종희	100,000	합계			56,313,018
36	46	한상호	30,000	94	54	황규홍	100,000	153	61	김종철	100,000	212	68	오경석	200,000				
37	46	박길호	100,000	95	54	정찬웅	50,000	154	61	이재신	100,000	213	68	이영수	50,000				
38	46	이상량	100,000	96	54	오성균	100,000	155	61	최용락	100,000	214	68	정인우	100,000				
39	47	권 흥	100,000	97	54	장병환	100,000	156	61	염태갑	100,000	215	68	김상수	100,000				
40	47	이영신	100,000	98	55	윤성익	50,000	157	62	이용배	1,500,000	216	68	김창선	50,000				
41	47	김홍구	100,000	99	55	한중수	200,000	158	62	이상진	50,000	217	69	오석진	100,000				
42	48	이종철	1,000,000	100	55	김갑동	100,000	159	62	성재용	100,000	218	69	이병권	100,000				
43	48	이수용	100,000	101	55	권영실	100,000	160	62	나용권	30,000	219	70	김성근	100,000				
44	48	김영주	100,000	102	55	박두순	200,000	161	62	이철호	50,000	220	70	김규형	100,000				
45	48	박현우	100,000	103	55	양일호	100,000	162	62	김병각	100,000	221	70	조준연	100,000				
46	48	박성진	300,000	104	55	이지현	100,000	163	62	박시완	100,000	222	70	신종근	50,000				
47	48	최이섭	50,000	105	55	김주연	20,000	164	62	민종오	100,000	223	71	장욱재	100,000				
48	48	여국동	300,000	106	55	이성구	500,000	165	63	이권정	100,000	224	71	최위영	100,000				
49	48	이진갑	200,000	107	55	정완채	100,000	166	63	이보행	100,000	225	74	김경환	100,000				
50	48	이신석	100,000	108	55	이재용	100,000	167	63	강병진	100,000	226	74	이훈범	50,000				
51	49	박성기	100,000	109	56	이중엽	100,000	168	63	류원배	100,000	227	74	주영인	50,000				
52	49	손중열	50,000	110	56	류한호	10,000	169	63	방차옥	100,000	228	75	이왕수	100,000				
53	49	남용민	100,000	111	56	구본식	100,000	170	63	송영복	100,000	229	75	김승권	100,000				
54	49	한승희	100,000	112	56	조성오	100,000	171	63	신영호	50,000	230	76	황정식	100,000				
55	49	김병목	200,000	113	56	황인호	100,000	172	63	박희운	100,000	231	77	이건우	100,000				
56	49	황동서	50,000	114	56	장순관	100,000	173	63	이은일	100,000	232	77	박종범	100,000				
57	49	류진영	100,000	115	57	박종욱	200,000	174	63	정국영	200,000	233	77	김진형	100,000				
58	49	송인상	100,000	116	57	유승호	20,000	175	63	곽기용	100,000	234	78	여성진	100,000				
				117	57	김병락	10,000	176	64	박범정	100,000	235	78	서정모	50,000				

◇ 기 별 ◇

연번	기수	이름	금액
1	48	48회동창회	1,000,000
2	52	52회동창회	300,000
3	54	54회동창회	1,000,000
4	55	55회동창회	1,000,000
5	58	58회동창회	2,500,000
6	61	61회골프회(대전)	1,000,000
7	61	공과사냥꾼	700,000
8	63	63회동창회	1,000,000
9	72	72회동창회	1,000,000
10	0	대경회	3,000,000
11	0	대능골프회	1,000,000
12	0	대사모	1,000,000
13	0	대추회	1,000,000
14	0	대전고인문학회	300,000
15			

총동창회 임원·기별동창회 회장단 연석회의

총동창회 임원·기별동창회 회장단 연석회의가 2022년 10월 5일(수) 오후 6시 30분에 동창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 안건은 '2022년 송년의 밤' 행사의 건과 '개별동호회 지원금 지급에 관한 건'이었으며 송년의 밤 행사는 원안대로 통과되어 12월 15일(목) 오후 6시에 유성호텔 8층 스타볼룸에서 열기로 했고 개별동호회 지원금 지급에 관한 건은 총동창회 참여도와 기여도 등을 참고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동창회 임원 및 기별동창회 임원 등 총 43명이 참석했다.



51회 졸업 50주년 기념행사

51회 동문의 졸업 50주년 기념행사가 2022년 10월 15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대전 현충원 둘레길과 유성호텔에서 1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51회 동문들은 앞서 10월 5일(수) 동창회관을 방문하여 졸업 50주년 기념 총동창회 및 모교 발전 기금을 전달했다.



'수능 대박' 기원 선물세트 전달

대전고총창회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맞아 2022년 11월 9일(수) '수능시험 대박'을 기원하는 선배들의 바람을 담아 수능 선물세트를 모교에 전달했다.



60회 졸업 40주년 기념 행사

60회 40주년 행사가 11월 19일(토) 오후 5시에 유성호텔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행사는 "우정/공감/동행"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갑니다!"라는 주제로 1부 기념식, 2부 기념만찬, 3부 우정잔치로 진행되었습니다.



3년만의 교직원 명랑운동회, 동창회 후원 쏟아지다!

6월 29일, 대전고등학교 강당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명랑운동회를 열었다. 이번 명랑운동회에는 총동창회와 68기 동창회에서 후원자 방문하였고, 68기 이영수 회장은 "오랜 시간,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았을텐데 오늘 보니 교직원의 열정과 화합이 대단하다."며 방문 소회를 밝혔다.

또한 권태수 총무는 "많은 동기들이 늘 모교 소식을 궁금해하는데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라 참 기쁘고 직접 인사드리고 싶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전고 한형수 친목회 간사는 "모처럼의 직원 단합과 친목 도모의 시간을 마련했는데 총동창회에서 바베큐를, 61기 한상주 동문이 음료수를 보내주고 68기 동창회에서 후원금을 건네는 등 후원이 쏟아지자, 많은 교직원들이 역시 명문 대고는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며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대전고등학교 윤장순 교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동문들의 후원이 오히려 늘었다. 앞으로도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나아가겠다."며 학교 운영의 포부를 밝혔다.



대통령배 야구대회 우승 축하 행사 개최

8월 26일 '대통령배 전국고교 야구대회 우승' 축하 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이승찬 회장은 대전고 74회 졸업생으로 대전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1994년 제28회 대통령배 전국고교 야구대회 우승의 영광을 기억하며, "오랫동안 꿈이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계속 꿈꾸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대업을 젊음의 기백과 불굴의 정신으로 이뤄낸 대전고 후배들에게 감사하다."며 감회를 밝혔다.

대전고등학교 윤장순 교장은 격려사에서 "노력과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진리와 같이 대전고 야구부의 뜨거운 열정이 승리를 만들어냈다."며 "앞으로도 높은 경기력과 불굴의 투지로 대전의 야구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단합 잘되는 명문 기수' 57회 동문의 청와대 방문기

우리 57회 동기들은 서울과 대전에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대전에서 서울 동문이 내려와 단합 대회도 하면서 서로의 우정을 돈독하게 쌓아가는 명문 기수이다. 57회 동문은 1년에 두 번 5월과 10월에 체육대회, 등반대회를 계속해 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2년여 동안 단체 모임 행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모처럼 청와대를 방문하게 되었다.

대전에 사는 57회 동기 20여 명은 대형버스에 탑승해 서울로 출발했다. 이제 우리 57회 기수 친구들의 나이도 어언 60이 넘었지만, 서울로 버스 타고 가면서 옛날의 학창시절 교복 입고 설악산으로 수학여행을 갔던 기억을 떠올리게 됐다.

57회 동기들은 서울 청와대에 도착하여 미리 마중 나온 서울에 사는 동기들과 합류하여 청와대 옆 칠궁을 관람하고 재경 동문의 도움으로 북악산 또는 백악산이라고도 하는 등산 코스에서 청와대 전망대까지 등산도 했고 청와대 관람도 했다. 역대 대통령의 초상화, 영부인 접견실, 대통령의 접견실, 집무실, 영부인 드레스실, 녹지원, 인수문 등을 차례로 관람하고 기념 촬영도 했다.

청와대 관람 후에는 재경 동문이 예약한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며 고등학교 동기 동창만큼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가 없음을 새삼 느끼게 됐다. 이번 행사로 우리 57회 동기들은 다시 한번 서울 동문과 대전 동문의 단합된 모습도 보여주었고, 서로의 직접 대면을 통해 깊은 우정과 동기애를 느끼는 계기가 됐다.

우리 대고의 응원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는 대고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대고를 생각하면서 어느 동문의 50주년 행사가 얼마 남지 않음을 기억하고 재회의 순간까지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는 마음가짐도 갖게 되는 행사였다. 항상 우리 57회 동기들은 모교를 사랑하고, 동기들이 하나로 뭉쳐서 영원히 빛나는 최고의 57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69회 졸업 30주년 기념행사

코로나 확산으로 2년여간 연기됐던 대전고 69기 졸업 30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6월 25일 69기 동기회(회장 이도훈, 이엘치과병원장) 주관으로 대전 선샤인 호텔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69기 졸업생 120명은 3학년 재학 시절 각 반 담임 선생님과 모교 선·후배들을 모시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도훈 추진위원장은 동기회를 대표해서 지난 학창 시절을 이끌어주신 은사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한 분 한 분께 전달드렸다.

이어 인사말을 통해 "지난 고교 시절 잘되거라 가르쳐주신 선생님들께서 친히 참석해 주셔서 더욱 의미 있는 30주년 행사입니다. 스승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라고 하며, "앞으로 모교 발전을 위해서 69기가 하나가 된 모습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이도훈 회장의 인사말, 동문 선배님들의 축사, 은사님의 격려사, 기념촬영, 만찬 및 축하 행사, 경품 추첨 순으로 이어졌다.

이밖에, 졸업 30주년을 추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69기 동기들의 글을 모은 기념 문집 '30년 아름다운 동행'을 출간했으며, 여기에는 박병석(전, 국회의장) 49회 선배님을 비롯한 열 분 선·후배님들의 축사와 격려사, 그리고 동기 80여 명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글과 사진이 실렸다.

한편, 69 동기회는 송기동을 신임 회장으로 해 동기회 활동 및 모교 발전 노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100년 넘어 200년 전통 만들자”

재경총동창회, 국회의원·각료·자치단체장 동문 축하연



재경총동창회는 2020년 국회의원, 2022년 신임 각료, 지방자치단체장에 입성한 동문을 응원하는 축하연을 2022년 6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 있는 세종클럽 세종홀에서 가졌다.

이날 축하연은 대전고 총동창회, 재경대전고 총동창회, 대전고언론인회가 대능인의 명예를 빛내고 국운을 짊어진 동문 리더들의 활약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축하 대상은 총 9명이다.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박병석(49회), 이명수(52회), 윤창현(58회) >윤

석열 정부 내각에 입성한 산림청장 남성현(56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58회), 노동부장관 이정식(59회) >6·1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에 선출된 천안시장 박상돈(47회), 대전 서구청장 서철모(62회), 대전시장 이장우(63회) 동문이다.

대전고는 특히 이번에 역대 정부들의 초대 내각 중에서 가장 많은 각료를 배출하는 성과를 이뤘다.

김경수(58회) 재경대전고 총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아홉 동문의 선전은 대전고 모두의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오늘은 대능인의 자긍심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100년을 넘어 150년 200년 전통의 대전고를 위해 동문 모두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참석하지 못한 대전고언론인회 김정훈(58회) 회장을 대신한 김윤영(52회) 대전고 언론인회 고문은 축하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대전고등학교 동문들에게 더 없이 기쁘고 뜻 깊은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축하할 분들은 대전고의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크고 작은 문제를 풀어

갈 현량이자 대들보로 대전고의 명예를 더욱 빛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총동창회는 이들에게 상패와 꽃다발을 전달하고 앞길을 축하했다. 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대전에서 서울까지 한달음에 행차한 김인(58회) 대전고 총동창회장은 “대전고의 명예와 전통을 드높여줘 감사하다”며 멋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응원했다.

이와 함께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김각영(41회) 재경동창회 상임고문, 한모기술 대표이사인 송재준(44회) 재경동창회 자문위원장 등도 격려사를 통해 축하의 인사말을 나눴다. 축하 대상자들도 답례사를 통해 동문들의 지지에 화답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100여명의 동문들은 ‘수련은 조국으로 멈출 줄 없다’는 교가를 힘껏 외치며 우애를 다졌다. 이날 축하연에는 예술인으로 활동 중인 동문 자녀인 가수 리비안(김석원, 60회 동문)과 성악가 김지웅(김영옥, 57회 동문)의 멋진 노래가 행사를 더욱 빛냈다.

재경대전고총동창회, 일대일 결연장학금 1억7천만원 · 운동부지원금 2천만원 전달

재경대전고총동창회(회장 김경수)의 ‘2022년 일대일결연 장학금 지원’과 ‘운동부 지원금’ 전달식을 10월 26일 대전고 시청각실에서 가졌다. 이날 김경수 재경총동창회장과 임재준 사무처장 등은 서울·수도권 거주 동문들이 모은 일대일결연장학금 1억7천만원과 운동부 지원금 2천만원을 학교에 전달했다.

재경대전고총동창회는 졸업 동문이 재학생을 직접 후원하는 일대일 결연장학금 사업을 2003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누적 32억원을 모아 재학생들의 기숙사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재경대전고총동창회의 관심과 후원은 재학생들의 학력신장과 학교운영 개선에 크게 기여해 왔다.

전달식에서 윤장순 교장은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사랑은 우리 학생들의 꿈을 더 크게 만들고 쾌적한 환경에서 미래 사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주역이 되도록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된다.”고 감사인사를 전달했다.

김경수 재경총동창회장은 격려사에서 “지난 20년 동안 이어온 재경총동창회의 일대일 결연장학지원

사업은 우리나라의 총 2,730개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전통”이라며 “학업에 매진해 국가와 전 세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선배들의 바람이고 여러분들이 진정 보답하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재경총동창회는 일대일결연장학금 전달에 이어 운동부 후원금 2천만원을 전달하였다. 대전고의 야구부와 농구부는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야구부는 지난 8월 17일 2022년 제 56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정상에 올라 대전·충청권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운동부 후원금을 전달받은 야구부 김의수 감독은 “대전고의 대통령배 야구대회 우승은 야구부뿐만 아니라 학교와 동문들의 뜨거운 응원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재경총동창회의 지원으로 운동부 선수들이 체력과 기량을 갈고닦아 더 나은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교장선생님 인사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4만 동문 여러분, 작년 9월 39대 교장으로 부임한 윤장순(63회)입니다. 입학한 지 40년 만에, 모교에 돌아와 이렇게 인사 드리게 되니 가슴 벅찬 기쁨과 더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푸르른 봄날, 더욱 더 생각나는 고마운 동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늘 모교를 응원해주시고, 한결같은 후배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전국

각계 각층의 동문 여러분들께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교는 언제나 당신의 사랑과 후원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이 걸어간 대능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의 후배들이 내일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박영규 전 총동창회장의 말씀처럼 지난 100년 대전고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의 역사였습니다. 4만 동문의 성장과 더불어 우리 고장 대전이 발전해 왔습니다.

선배들이 이룩한 이 위대한 역사와 전통이 잘 이어지도록 따뜻한 감동을 주는 교육, 모두가 행복한 학

교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역경에서도 오히려 늘어난 동문 장학금과 후원에 대고 가족 모두 뜨거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없는 감사의 마음을 명문 대고 새로운 100년을 이끌어갈 인재양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동문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조만간 코로나가 끝나서 다시 대능의 트랙에서 동문님을 만날 것을 상상하니 벌써 마음이 설레입니다. 동문님 모두 다시 만날 그날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따뜻한 감동’을 주는 ‘모두가 행복한’ 대전고등학교!

28년 만에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

대전고등학교, 제56회 대통령배 전국고교 야구대회 결승전에서 전주고를 꺾고 우승 차지

대전고등학교 야구부가 제56회 대통령배 전국고교 야구대회 결승전에서 전주고를 7대 4로 꺾고 28년 만에 대통령배 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대통령배는 황금사자기 16강, 청룡기 16강 등 전국의 강팀들이 참가하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회로,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총 42개교의 야구부가 참가했다.

대전고는 백송고를 시작으로 야구 명문 유신고, 전년도 준우승팀 라온고를 물리쳤으며, 4강전에서 신흥 명문 안산공업고를 크게 이기고 결승에 올랐다.

동창회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은 대전고는 결승전에서 1~2학년 학생 600여명과 교직원이 목동야구장을 방문하여 원정 응원을 펼쳤고, 1회 3점, 2회 2점, 6회 2점을 득점하며 전주고의 거센 추격을 물리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지역의 야구 역사를 써가고 있는 대전고는 이로써 1987년 청룡기, 1990년 봉황대기, 1994년 대통령배에 이어 4번째로 메이저 전국대회 우승의 금자탑을 쌓게 되었다.

3루수로 출전한곽성준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선수상(MVP), 타격상, 최다안타상을 휩쓸며 3관왕에 올랐고, 3회 등판해 6%이닝 동안 삼진 8개

를 뽑아내며 2실점으로 호투한 송영진 선수가 수훈상을 수상하는 등 9개 분야에서 대전고 선수와 관계자가 입상하였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야구부 우승 격려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대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등 관계자들은 9월 16일 대전고등학교를 방문해 야구부 선수들을 격려하고 훈련지원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대전고등학교 야구부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팀으로서 이번 전국대회에서 28년 만에 우승하는 쾌거를 이룬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다가오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소망한다.”며 훈련지원금 천만원을 전달했다.

김석중 체육예술건강과장은 “치열한 경쟁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전국대회 우승을 일군 대전고 야구부 선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스포츠를 통해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고등학교 야구부는 우리나라 야구 역사에 기여한 우수한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하였고, 현재도 그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선샤인 호텔, 대전고등학교 학교발전기금 1,000만원 기탁

선샤인 호텔(대표 이진태외 3명)에서 대전고등학교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하는 행사를 2022년 10월 21일 대전고등학교에서 가졌다.

선샤인 호텔은 대전의 대표 호텔로써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역할을 중추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발전기금 기탁 역시 100여년간 찬란한 역사를 창조하고 있는 대전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큰 꿈을 펼쳐 대전은 물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데 힘을 보태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선샤인 호텔 이진태 대표는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라고 기탁 뜻을 밝혔다.

대전고등학교 윤장순 교장은 ‘우리 학교와 소중한 인연을 맺고 학교 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선샤인 호텔 이진태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각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의 지원은 우리학교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꿈을 향해 계속 정진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된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먼 곳에서도 모교를 잊지 않는 정성, 대전중·고교 뉴욕동창회 지원금 기탁



대전중·고교 뉴욕 동창회(회장 이은구(53회))에서 대전고등학교의 제56회 대통령배 야구대회 제패를 축하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대전고등학교의 성장을 함께 지원하고자 격려 장학금을 기부해 감동을 주고있다.

대전중고등학교 출신 뉴욕 거주 동창회인 대전중·고교 뉴욕 동창회(이하 뉴욕동창회)는 모교인 대전고등학교가 대통령배 야구대회를 제패한 것을 응원하고자 모금 활동을 펼쳐 기부금을 마련하였다고 알려졌다. 모금 활동으로 조성된 장학금을 유망 선수가 안정적으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운동부 학생

1명과 가정형편으로 학업에 곤란을 겪는 일반 학생 1명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장학금 2,999달러를 1차로 지원하였으며, 곧이어 야구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비 3,999달러를 2차로 기부해 주었다. 또한, 모교 지원을 위한 모금 활동을 정기적으로 펼쳐 대전고등학교의 발전에 힘을 더하고, 후배들이 세계 시민의 한사람, 한사람으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학교에서는 선발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여 어려운 환경으로 운동과 학업에 곤란함을 겪는 학생이 없도록 지원하고, 운동부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경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야구부 지원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특히,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뉴욕동창회 동문들에게 감사편지를 전하여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더라도 먼 타국에서도 모교를 잊지 않고 지원해주신 선배님들의 뜻에 대하여 진심을 담아 고마움을 표하였다.

대전고등학교 윤장순 교장은 “뉴욕에 계신 동문들의 뜻을 받들어, 모아주시는 정성이 후배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사용하겠으며, 학생의 학업성취와 운동부 경기력 향상으로 보답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故 남궁욱 동문의 모교사랑 영원히~



故 남궁욱 동문(50회)의 유가족이 고인의 별세 1주년을 맞아 대전고등학교에 1천만원을 기부하였다.

6월 28일, 故 남궁욱 동문의 배우자는 “작년에 갑자기 일을 당해 경황이 없었는데, 많은 동문들이 찾아와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평소 모교를 그리워하던 남편의 뜻도 살려서 적은 돈이지만 후배 양성에 써 달라”고 기부금을 전해왔다.

남궁욱 동문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물리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4년 동국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부임하여 30여 년간 재직하며 자연과학연구원장을 역임하고 2018년에 정년을 맞아 명예교수가 되었다. 이후 2021년 6월 30일 별세하였다.



동국대에서 많은 후학을 양성한 남궁욱 동문은 입자물리 이론을 연구하며 양자역학의 정수를 강의한 성실하고 유능한 교수로 유명했으며 또한 가정에서는 자상하고 다정한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 두 아들을 변호사와 서울대 강사로 키워냈다.

대전고등학교 윤장순 교장은 “유가족의 기부금으로 학생 휴게공간을 정비한 후, 고인의 소중한 뜻을 기리기 위해 ‘남궁욱 쉼터’로 정하고 재학생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갖겠다”며 고마운 마음을 밝혔다.

2022년 하반기 우수동문 장학금 전달

아성재단과 대전고동창장학회의 2학기 우수동문 대학 장학금이 각각 5천3백만원, 2천2백5십만원 씩 2022년 10월 졸업생들에게 전달되었다.

재단법인 아성재단은 49회 졸업생인 ㈜아성코리아 권오상 회장이 인재양성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2011년 설립한 복지재단으로 2012년부터 11년간 총 56명의 모교 출신 대학(원)생에게 졸업할 때까지 매학기 200만원씩 약 6억8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재단법인 대전고동창장학회(45회 장영철 이사장)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9년동안 총 36명의 동문 대학생에게 매학기 150만원씩 약 2억9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최고 수준 대전고 관악부·합창부 각종 음악대회 입상

10월 8일 충남 예산 윤봉길체육관에서 열린 제46회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에서 대전고 관악부 학생들이 비빔밥 행진곡과 아팔란치아 서곡을 연주하여 영예로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악기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 관악팀이 주로 참여하는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에서 일반계고등학교 유일팀으로 참여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체계적인 교육과 학생들의 꾸준한 훈련의 결과라고 평가 되어진다.

또한, 10월 22일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대전 청소년음악제 경연대회에서 대전고등학교 관악부, 합창부 학생들이 기악 합 주부문과 합창 부문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하였다.

쌀 소비촉진 캠페인

“아침밥 먹고 공부하세요...”

농협대전지역본부(본부장 정낙선(65회))와 (사)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본부장 손명환)는 10월 27일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과 함께 대전고등학교에서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쌀 소비 촉진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된 이날 캠페인은 등굣길 학생 및 교직원 1,200여명을 대상으로 쌀로 만든 김밥을 나눠주어 우리 쌀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한, ‘쌀의 주성분인 탄수화물이 비만과 당뇨를 유발한다’라는 쌀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해소하고, 건강한 쌀 중심의 식습관 문화 형성을 유도하였다.

정낙선 농협대전지역본부장은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 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대전농협은 앞으로도 건강한 식습관과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쌀 소비촉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손명환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장은 “미래의 주역인 대전고 학생들이 아침



밥 먹기를 몸소 실천해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능력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57회 청와대 관람



58회 3학년 4반 모임



63회 공무원 모임 모교발전기금 전달



63회 정기모임



건능회(대전고 건양대학교 직원 모임)



대능산악회 제122차 월령산 산행

45회

◆ 애경사

• 김석중 : 본인상 2.4 / 이여덕 : 여훈 4.23 / 신영철 : 본인상 5.13 / 유성식 : 본인상 9.6 / 성기석 : 여훈 10.4

◆ 45산악회 연례행사 산행 중주

• 일시 : 10.29 • 장소 : 계룡산 갑사 동학사
• 참석인원 : 14명 • 회장 : 강준묵

◆ 동문동정

• 정성용 : 분재, 국화 전시회 작품 출품 10.8 ~ 24

50회

◆ 동문동정

•故 남궁옥 : 유가족, 별세 1주년 맞아 모교에 1,000만 원 기부 6.28

52회

◆ 대교 29대 총동창회, 52회 동기 명단

• 임기 21.5.1 ~ 23.4.30
• 자문위원 : (재경) 김의중, 이문표, (대전) 박성호, 이명수, 김형태, 김종건(6명)
• 이사 : (재경) 강명석, 이원건, 이학범, 김재흠, (대전) 권태영, 유하용, 박영선, 김재석, 김정모, 홍영택(10명)

◆ 대전 52회 동기회 임원진

• 임기 : 22.1.1 ~ 23.12.31
• 동창회장 : 김종건(5번)
• 수석 부회장 : 김정모(6번)
• 부회장 : 김재석(2번), 이희철(7번)
• 감사 : 김형태(2번)
• 사무총장(업무 총괄) : 박영선(2번)
• 총무(밴드 운영) : 김정모(6번)
• 총무(영상 제작) : 이종재(3번)
• 소그룹 회장
- 사능회 : 김정모(6번), 산악회 : 이종재(3번),
골프회 : 류호정

◆ 재경 52회 동기회 임원진

• 임기 : 22.1.1 ~ 23.12.31
• 회장 : 강명석 ☎ 010 8863 9189, 신임
• 수석부회장 : 이학범
• 부회장 : 김재흠
• 고문 : 기희서 (직전회장)
• 사무총장(유임) : 이원건(1번) ☎ 010-3723-3240
• 운영위원 : 배기홍, 오광세, 윤기영, 최광연
• 사이버총무(밴드운영) : 강명석
• 대전-재경 PC사이버 총무 : 이은명 ☎ 010 2430 1416
• 재경 소그룹 회장 : 산사춘(이정환), 산수유(송용갑),

이토(김덕록), 말구회(김우식), 52회 골프(박관희), 사진동우회(류동렬)

◆ 동문동정

• 박성호 : 국민의힘 대전시장 예비후보 개소식 3.27
용문동 태산빌딩, 오후 2시 ~ 6시

◆ 애경사

• 박상수 : 모친상 1.14 / 김경환 : 본인상 1.14 / 한의사 : 모친상 1.18 / 김대호 : 모친상 1.28 / 김정필 : 본인상 2.10 / 김석배 : 여훈 2.27 / 조성두 : 자훈 2.27 / 김광덕 : 모친상 3.5 / 임경목 : 자훈 3.20 / 이대영 : 본인상 3.23 / 김용정 : 모친상 3.25 / 김연직 : 장모상 3.27 / 전종구 : 자훈 3.27 / 윤석태 : 자훈 4.9 / 홍성표 : 자훈 4.9 / 이정환 : 장모상 4.11 / 서인석 : 모친상 4.11 / 백양식 : 모친상 4.22 / 송규수 : 자훈 5.28 / 주엽 : 자훈 6.5 / 박승익 : 모친상 6.8 / 김재용 : 자훈 6.11 / 이종서 : 자훈 6.25 / 박원식 : 여훈 7.2 / 김성배 : 장모상 7.7 / 박도순 : 부친상 7.16 / 김우식 : 본인상 7.21 / 윤석태 : 장모상 9.16 / 박태호 : 부친상 9.19 / 주엽 : 장모상 9.26 / 백성구 : 자훈 10.1 / 윤기영 : 자훈 11.5 / 이상은 : 모친상 10.1 / 김종건 : 부친상 10.8

54회

◆ 대전 54회 आय회

• 일시 : 10.3 • 장소 : 대전, 보령
• 참석인원 : 33명(대전·세종 22명, 충청 2명, 재경 9명)

◆ 재경 54회 산행

• 일시 : 9.29 • 장소 : 남산 둘레길
• 참석인원 : 24명

◆ 재경 54회 송년회

• 일시 : 12.10

◆ 재경 54회 동기 자녀 치료비 모금 전달

• 일시 : 6.16

◆ 모교 결연 장학금 후원(1구좌 170만원)

• 54회 재경동기회 : 1구좌
• 이권훈 : 1구좌 / 장인상 : 1구좌 / 정영재 : 1구좌 / 한상원 : 1구좌

◆ 동문동정

• 안창호 : 공수처 자문위원회 2대 위원장 임명 5.13
전 헌법재판관
• 김제인 : 서울 강남미술대전 미술 전시회 6.27
보문미술대전 미술 전시회 7.4

◆ 애경사

• 이상주 : 모친상 4.26 / 이수형 : 모친상 5.4 / 장인상 : 자훈 5.14 / 김귀오 : 빙부상 5.17 / 임병호 : 자훈 5.28 / 전재철 : 여훈 5.28 / 정병욱 : 모친상 5.31 / 김민경 :

자훈 7.1 / 송석홍 : 장모상 7.24 / 유병길 : 부친상 8.12 / 신동린 : 여훈 8.27 / 정기주 : 자훈 8.28 / 박광주 : 빙부상 9.14 / 박태식 : 부친상 9.17 / 이충우 : 자훈 9.24 / 강원규 : 자훈 10.3 / 정용필 : 모친상 10.10 / 김상현 : 장모상 10.20 / 장병환 : 자훈 10.30 / 장둔 : 자훈 11.13

62회

◆ 동문동정

• 서철모 : 대전서구청장(민선8기 제9대) 취임 22.7.
• 신동범 : 계룡스파텔 사장(8대) 취임 22.2.

63회

◆ 모교 특강



강병진 특강



윤진용 특강



이강욱 특강

◆ 동문동정

• 최대식 : 대전시 도시개발과장(서기관) 7.13
• 장승익 : 노은농수축산물검사소장 7.26
• 안태정 : 대전둔산서장 8.11

66회

◆ 66회 동창회 정기총회

• 일시 : 11.26 • 장소 : 미식정순두부



2022 회계연도 총동창회 회비 납부/협찬 현황

◆ 기별동창회·지회 분담금

가수·지회	연회비	정기총회	등반대회	송년의밤	비고
51	600	1,200		450	2,250
52	600	1,200		450	2,250
53	600	1,200		450	2,250
54	600	1,200		450	2,250
55	600	1,200			1,800
56	600	1,200		450	2,250
57	600	1,200		450	2,250
58	600	1,200		450	2,250
59	600	1,200			1,800
60	600	1,200		450	2,250
61	600	1,200		450	2,250
62	600	1,200		450	2,250
63	600	1,200		450	2,250
64	600	1,200		450	2,250
65					-
66	600	1,200		450	2,250
67					-
68	600	1,200		450	2,250
69					-
70					-
71					-
72	600	1,200			1,800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홍성지회	200				200
계	10,400	20,400	-	6,300	37,100

(단위:천원, 2022. 11. 30. 기준)

◆ 부회장회비(1,000,000원)

가수	성명
58	윤석총
62	이용배
63	강병진, 이보행
64	박종민
69	김영철
71	명노신
계	7명 7,000,000원

(2022. 11. 30. 기준)

◆ 자문위원성금(300,000원)

가수	성명
36	임갑한
37	김중두
45	홍승원
47	민형기, 오세빈
51	전병구, 황성연, 황인방
52	김종건
54	강인빈
56	구본석, 김충현
58	권선국, 오충환
59	이재홍
60	김암
61	한상주
63	이장순, 송인철
67	임영수, 김태형, 정동만, 이영호, 차재훈
계	24명 6,600,000원

(2022. 11. 30. 기준)

◆ 이사회비(100,000원)

가수	성명
38	전성환
40	김민철
41	명건식
44	김명수, 김철기, 안준영
45	김중순
46	강세경, 권인순, 권희상, 백채완
47	박정운, 송현호, 장훈진
48	이신석, 임상순
49	김원명, 김호중
50	김석영
51	김순식, 손장현, 오성균, 전복진
52	강명석, 권태영, 김재석, 김정모, 유하용, 이학범
53	류근철, 박용규, 오홍근, 조성준
54	김성호, 김세경, 나성찬, 송일섭, 신현교, 정기주, 조영환
55	안은찬
56	유재영, 이종업, 이진섭
57	김태훈, 이우순, 이효경, 홍기민
58	박병찬, 변재훈, 신건일, 이현식
59	김황석

가수	성명
60	김선도, 이주혁
62	김홍덕, 서철모, 이대성, 이상진
63	박희윤, 유원배, 이권정, 이용, 지동선, 황진영
64	유영조
65	진종식
66	최영조, 한찬우
67	고영호, 신용
68	김상수, 김창선, 박병일, 박성배, 안경환
69	김병각, 이도훈
70	이상민
72	김경수, 이주훈, 이진성, 최병열
73	최상일, 최영균
76	황정식
77	박종범, 황홍순
78	여성진, 최성진
계	89명 8,900,000원

(2022. 11. 30. 기준)

◆ 2022 정기총회 협찬

가수	성명	금액	총동창회 직책	비고
58	김인	10,000	총동창회장	연세대학교 교수
33	박종윤	1,000	고문	(주)세창 회장
48	신현일	1,000	고문	보문통상(주) 대표이사
52	홍종오	1,000	상임고문	종오당약국 대표
48	이종철	1,000	대능장학문화재단 이사장	(주)위드하나 대표이사
58	이왕구	10,000	사무총장	(주)농소개발 대표
37	김중두	200	자문위원	前 중교교장
38	김정배	100	이사	
49	김원명	300	이사	교육부 시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51	김보균	1,000	이사	(주)컴트로닉스 회장
51	황인방	200	자문위원	순풍산부인과 원장
52	유하용	100	이사	파랑새기획 대표
53	이영해	100		국회의원 박병석 특보
57	이관순	1,000	재경동창회 부회장	한미약품 부회장
57	이재덕	300	이사	이재덕법률사무소
57	정찬근	300	대능장학문화재단 이사	(주)한스코 대표이사
58	강석만	200	이사	강석만치과 원장
58	변재훈	200	이사	타임문고 대표이사
58	곽상규	100	이사	前 광시중학교 교장
58	권선국	200	자문위원	성모가정의원 원장
58	도중철	100	이사	도중철법률사무소 대표
58	임도빈	1,000	부회장	前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58	최대경	100		최대경 여성의원 원장
60	박현주	200		국제무역상사 ANK 대표
61	박재용	300	기획장, 이사	(주)비투엘메디칼 대표이사
62	이상진	100	이사	
63	이권정	1,000	기획장, 이사	토지주택공사
63	강병진	400	부회장	시선건축사무소 대표
63	곽기용	100	이사	남주상사 대표
63	김관태	100	이사	주택관리공단 대전충남지사
63	김봉주	500	이사	코오롱글로벌(주)
63	김우석	500	이사	(주)웅진디앤씨 대표이사
63	김정일	300	이사	법무법인 연승 사무국장
63	류원배	200	이사	광남수산 대표
63	윤장순	1,000	명예회장	모교 교장
63	윤진용	500	이사	법무법인 자스티스 대표변호사
63	이보행	300	부회장	대현광고기획 대표
63	이재호	100	이사	라운출장뷔페 대표
63	송인철	200	부회장	코오롱글로벌(주)
63	주성호	200	이사	링크시스템(주) 대표이사
63	정기준	500	이사	한솔페이퍼텍(주) 대표이사
63	조형태	100	이사	대덕구청 건설과
66	이종민	200	자문위원	(주)플러스메디칼 대표이사
68	김상수	200	이사	삼성전자대점(주)영광점, 대표이사
68	권태수	100	부회장	농소건설장비 조합
68	박병일	100	기재무, 이사	(주)한신코아건설 상무
68	이영수	100	기획장, 이사	삼성화재
68	이선현	100	부회장	농소건설장비 조합
69	이도훈	1,000	기획장, 이사	이엘치과 병원장
76	황정식	200	기획장, 이사	미식정 순두부 대표
재경동창회	1,000			회장 김경수(58)
금산지회	200			회장 조신영(41)
삼금회	500			회장 박종서(47)
대능골프회	500			회장 강인빈(54)
교능회	1,000			회장 김중두(61)
대경회	500			대전고등학교교경제인회
대전고연인회	200			회장 박희윤(63)
대전고FC	300			회장 한찬우(66)
팔팔회	200			회장 권태수(68)
58회동창회	5,000			회장 배재성(58)
50회 특별협찬금	450			회장 김석영
51회 특별협찬금	450			회장 문운성
52회 특별협찬금	450			회장 김종건
53회 특별협찬금	450			회장 박용규
54회 특별협찬금	450			회장 신현교
57회 특별협찬금	450			회장 최시환
58회 특별협찬금	450			회장 배재성
60회 특별협찬금	450			회장 이승춘
61회 특별협찬금	450			회장 박재용
62회 특별협찬금	450			회장 심상용

가수	성명	금액	총동창회 직책	비고
63회 특별협찬금		450		회장 이권정
64회 특별협찬금		450		회장 성선제
66회 특별협찬금		450		회장 이종한
68회 특별협찬금		450		회장 이영수
69회 특별협찬금		450		회장 이도훈
내접식당		100		
계		54,350		

(단위:천원, 2022. 11. 30. 기준)

2022 회계연도 재경동창회 회비 납부 현황

◆ 2022회계연도 기별분담금

가수	기본분담금			정기총회분담금			계	
	배정	납부액	납부일	배정	납부액	납부일	배정	납부
45회	500	50		500	50		1,000	100
46회	500	50		500	50		1,000	100
47회	500	50		500	50		1,000	100
48회	500	50		500	50		1,000	100
49회	1,000	100		500	50		1,500	150
50회	1,500	150		1,000	100		2,500	250
51회	1,500	150		1,000	100		2,500	250
52회	1,500	100		1,000			2,500	100
53회	1,500	150		1,000	100		2,500	250
54회	1,500	150		1,000	100		2,500	250
55회	1,500	150		1,000	100		2,500	250
56회	2,000	200		1,000	100		3,000	300
57회	2,000	200		1,000	100		3,000	300
58회	2,000	200		1,000	100		3,000	300
59회	2,000	200		1,000	100		3,000	300
60회	2,000	200		1,000	100		3,000	300
61회	2,000	200		1,000	100		3,000	300
62회	2,000	200		1,000	100		3,000	300
63회	2,000	200		1,000	100		3,000	300
64회	2,000	200		1,000	100		3,000	300
65회	2,000			1,000			3,000	
66회	2,000	200		1,000	100		3,000	300
67회	1,000	100		1,000	100		2,000	200
68회	1,000			1,000			2,000	
69회	1,000			1,000			2,000	
70회	1,000	100		1,000	100		2,000	200
71회	500			500			1,000	
72회	500	50		500	50		1,000	100
73회	500			500			1,000	
74회	500			500			1,000	
75회	500			500			1,000	
76회	500			500			1,000	
77회	500			500			1,000	
78회	500			500			1,000	
합계	3,400			2,000			69,500	5,400

(단위:천원, 2022. 11. 18. 기준)

◆ 2022 결연장학금 납부 현황

가수	성명	구좌	금액	가수	성명	구좌	금액
단체	재경54회	1	1,700	53	조종대	1	1,700
31	김용우	1	1,700	54	정영재	1	1,700
31	성백전	1	1,700	54	한상원	1	1,700
34	故 송자	2	3,400	54	장인상	1	1,700
38	김종구	1	1,700	54	이권환	1	1,700
40	김남홍	1	1,700	54	김세경	1	1,700
40	윤호일	1	1,700	55	안상함	1	1,700
40	이정치	1	1,700	55	김성남	1	1,700
41	김각영	1	1,700	55	성하청	1	1,700
43	유창중	1	1,700	55	조용병	1	1,700
44	송재준	1	1,700	56	조동인	5	8,500
44	김주필	1	1,700	56	송인수	1	1,700
45	이윤재	10	17,000	56	박병욱	1	1,700
46	박희섭	1	1,700	57	김덕중	1	1,700
46	이상량	1	1,700	57	육현표	5	8,500
47	권광중	일부	1,000	57	오세현	1	1,700
47	김부열	일부	1,000	58	김경수	3	5,100
47	노정호	일부	500	58	조철연	1	1,700
47	박상돈	일부	1,000	59	김운식	1	1,700
48	신현일	1	1,700	59	김균태	1	1,700
48	목이균	1	1,700	59	신기천	1	1,700
48	정만우	1	1,700	60	김대현	1	1,700
49	권오상	6	10,200	60	이명섭	3	5,100
49	이상현	3	5,100	60	최기남	1	1,700
50	민진기	1	1,700	61	이의복	5	8,500
51	김희중	1	1,70				